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3

아세안과 경제 및 개발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한동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하며, "아세안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 된지 35주년이 되는 2024년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려고 하고 있다.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한국과 아세안이 공통으로 처한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협력,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미래 협력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하기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아세안 개발도상국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 및 농촌, 인프라개발, 교육 분야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동만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연세대 초빙교수이다,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느(파리1)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알제리, 영국, 호주, 미국(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 국제경제국장으로 근무한 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마친 후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필리핀 대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23년 4월까지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고문으로 일하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2019, 글로벌콘텐츠) 등이 있다.

일시: 2023년 5월 30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